

# 화학제품 수입 “불법 판친다!”

환경부, 9월까지 자진신고 후 전방위 단속 ... 위반비율 70%

화학물질 수입기업의 불법행위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2005년 4-9월을 불법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차원에서 5-7월 화학물질 수입기업 33곳을 방문 확인한 결과 23사에서 80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이 드러났다.

위반기업 수는 확인대상의 70%에 달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수입기업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위반내역을 보면, 사전에 유해성을 심사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25건,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과 관찰물질 각각 41건과 14건이었다.

또 4-7월 자진신고가 들어온 불법행위는 신규 화학물질 27건, 유독물 47건, 관찰물질 34건 등 108건으로 집계됐다.

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부터는 전방위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05/08/29>